

## 보다 바람직한 保險酬価의 定着이...



翰林大學附屬 漢江聖心病院 院長 金 教 命

지난해에는 나라 안 밖으로 큼직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정말 多事多難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大型 인명 피해 사건들이 그 어느해 보다도 많이 일어났으며, 더우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한층 더 가슴아픈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 국제적으로도 많은 나라의 關心을 불러 일으키게 했다. 그 중에서 아직도 우리 국민의 腦裡에 사라지지 않고 있는 9월 1일 사하린 부근 상공에서 發生한 KAL 민간여객기의 격추사건과, 10월 9일 버마 랭군시 아웅산 국립묘소에서 북괴 무장 특공대에 의한 우리나라 외교사절 17명을 殉職케한 아웅산 묘소 암살 폭발사건등은 良識을 가진 세계의 모든 국민들이 忿怒하고 이를 哀惜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끔찍한 사건들은 다시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서로 다짐하며 이러한 사건의 再發 防止를 위해 국민 모두가 一心和氣 하여 진지하게 해결방안을 摸索해나 가야겠다. 다시는 이러한 슬픈일들이 일어나지 말기를 우리 醫療人 모두 두손 모아 비는 마음 懇切하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보다 즐겁고 希望찬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비는 바이다.

사람은 누구나 새해가 되면 각자의 環境과 처지에 따라 크고 작건간에 그 나름대로의 所望이 있고 그에 따라 새해 設計도 하고 이를 成就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게 마련이다. 그러다가 어느덧 歲暮가 되면 未盡한 계획에 대하여 후회와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필자도 역시 개인적으로 새해에는 건강에 좀 더 유의해 보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신세를 진 주위의 여러 친지들에게 조금씩이나마 그간의 진 빚을 갚아 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맡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좀 더 정열을 쏟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所望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현재 우리 의료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問題中에서 무엇보다 病院 經營 측면에서 “새해의 病院界 所望”에 대해 필자가 평소 느껴오던 몇가지를 적어 보고자 한다. 우선 첫번째 생각나는 것으로는, 근래 우리 病院界가 다같이 겪고 있는 환자와 의료인간에 자주

발생하는 醫療紛爭을 새해에는 可及的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과 일단 발생한 醫療紛爭에 대하여는 이를 사회적으로 큰 무리없이 대처 할 수 있는 어떤 實効性 있는 제도적인 根本 対策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지난해 연말인 12월 9일과 12월 10일 양일간에 걸쳐 病院協會 主管으로 釜谷에서 각계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병원에 있어서 醫療紛爭의 予防과 対策”이란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고 그때 참석한 주제 발표자나 토론자들로 부터 여러가지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온 바 있다. 그리고 11월 22일 그동안 4년간을 끝어온 서울대학병원의 수술사고 訴訟事件인 소위 “蓋然性 醫療事故”에 대한 대법원의 上告審 최종판결도 해당 병원당국은 물론 전체 의료계의 至大한 關心과 團合 意志의 결과로 우리 의료계의 憂慮는 일단 解消되는 방향으로 歸結이 되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기관을 경영해 본 사람이 아니면 경험해 보지 못한 實感나는 苦衷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는 한 두번의 세미나의 개최에 그치지 말고 우리 의료계가 합심단합하여 꾸준히 研究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당면과제라 생각한다.

두번째 생각나는 것으로는 새해에는 醫療保險 酬價를 좀 더 우리 病院界가 所望하고 있는 방향으로 현실성 있게 上向 調整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현행 보험수가는 1977년 우리나라에 처음 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사전에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각층과 충분한 의견 교환과 合議點을 찾음이 없이 우선 보험 실시 시기에 쫓겨서 정부 당국의 主導下에 制定 施行 되었으며 그 후 몇차례의 개정과 인상 조정이 있었으나 그 引上幅은 전국 都賣物價의 上昇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物價抑制政策과도 關聯이 있겠지만 보험수가 制定 당시의 첫 출발이 바람직한 過程을 거치지 못한 원인에 起因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요인이라 하겠

다.

이제 의료보험 적용인구는 1977년 이후 매년 擴大되어 1983년 말 현재는 전체 국민의 약 42%가 醫療保障 人口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수의 통계를 보면 의료보험 환자의 占有比率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한강성심병원의 지난해의 환자 진료통계를 살펴 보면 외래환자의 경우 1일 평균 통원 환자수의 57% 내지 60%가 그리고 입원환자의 경우는 1일 평균 재원자수의 40%가 의료보험환자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재단 산하 강남성심병원의 경우에도 외래환자는 평균 73% 내지 75%까지 입원 환자의 경우는 평균 재원 환자수의 48%까지가 의료보험 환자이다. 이와 같이 의료보험환자의 占有比率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 있어서 보험수가는 병원 경영면에 있어서 절대적인 影響을 끼치고 있다 할 것이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들이 經營 惡化로 곤란을 받고 있다는 신문보도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이제 보험수가의 適正한 改善問題는 우리의료계의 당면한 가장 切實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까운 시일내에 그 改善策이 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새해에는 우리재단 산하에 한림대학 부속병원을 춘천시에서 318병상 규모로 지하2층 지상10층(대지 4,330평 연건평 4,602평)의 건물을 11월중에 竣工 開院할 예정이다. 이 병원의 설립으로 춘천지역 주민들의 迅速한 診療와 保健向上은 물론 大學教育病院으로서도 크게 寄与 할 것으로 계획된 공사와 모든 준비가 예정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져 地域社會 醫療施惠에 이바지하는 것이 마지막 새해 所望이라 할 수 있겠다.